원료의약품 생산 특정품목 '집중'

94년 5억이상 118품목이 88.8% 차지… 항생제 54.7%로 비중 여전

원료의약품의 생산활동이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항생제 생산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.
제약협회가 집계한 5억원이상 생산 원료의약품은 94년 총 118개품목 2781억8240만원으로 93년 108품목 2214억4136만원에 비해 25.6% 성장했으며 특히 전체원료의약품 생산액 3131억8000만원의 88.8%를 차지, 93년보다 10.7% 증가해 특정원료의 집중화현상을 보여주고 있다.
이 가운데서도 항생물질제제는 51개품목에 1521억6890만원을 생산, 전체의 54.7%를 차지해 93년의 52.5%보다 2.5% 높아지면서 여전히 원료의약품중 가장 큰 비중을 나타냈다.
94년 원료의약품의 제제별 생산은 항생물질중 아목시실린이 9품목에 481억9812만원으로 93년대비 8.2% 증가했으며 다음이 세파졸린으로 136억6461만원(5품목), 세파클러 133억2522만원(5품목), 세프라딘 125억3599만원(5품목), 세포탁심 나트륨 120억1530만원(3품목), 암피실린 109억8194만원(5품목), 테트라 싸이클린 103억8845만원(1품목), 리팜피신 98억1201만원(2품목), 세프트리악손 46억7097만원(2품목)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.
이와관련 세파계 항생제의 세대교체가 활발해지면서 세파클러 및 세포탁심·세프트리악손 등이 부상하고 있으며 세파졸린 등의 항생제는 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.
리팜피신제제의 경우 98억1200만원어치를 생산, 전년대비 41.5% 감소했는데 이는 유한양행과 종근

5억원이상 원료의약품 생산실적(1994) (단위 : 1000원, %)

순위	제 품 명	기업명	1993	1994	증감률
1	아목시실린	우 평	10,293,868	20,750,716	101.6
2	실로스타졸	한국오츠카	7,386,766	11,794,756	59.7
3	지도부딘	삼천리제약	7,795,935	11,047,500	38.5
4	염산디메칠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	종 근 당	4,488,531	10,388,450	131.4
5	세파클러	경보화학	0	8,269,045	-
6	아목시실린(수출용)	대웅화학	6,832,768	7,405,288	8.4
7	세포탁심나트륨	한미정밀	2,452,761	7,272,348	196.5
8	타우린	동아제약	6,142,136	6,561,940	6.8
9	세파졸린나트륨	국제약품	6,293,194	6,093,571	▽3.2
10	인혈청알부민20%(최종원액)	동신제약	8,178,835	5,585,580	▽31.7
11	우르소데스옥시콜린산	대웅화학	5,775,350	5,366,900	▽7.1
12	암피실린	우 평	1,309,336	5,327,098	306.9
13	삭카린나트륨	제일물산	6,277,304	5,234,673	▽16.6
14	리팜피신	종 근 당	11,697,471	5,193,313	▽55.6
15	아목시실린트리하이드레이트	영진약품	5,770,680	5,143,140	▽10.9
16	리팜피신	유한양행	4,967,800	4,618,700	▽7.0
17	세프라딘	유한화학	354,891	4,524,637	1,174.9
18	트리메토프림	동화약품	4,568,718	4,056,987	▽11.2
19	메페남산	동방합성	3,185,325	3,654,200	14.7
20	치아민테트라히드로훌후릴디설화이드	일동제약	3,733,686	3,631,914	▽2.7
21	폴리사카라이드케이	광동제약	0	3,589,800	-
22	아목시실린트리하이드레이트	대웅화학	1,900,463	3,415,532	79.7
23	조태반성성선자극홀몬	유한양행	3,659,743	3,314,175	▽9.4
24	아목시실린	중외제약	2,220,881	3,010,175	35.5
25	세포탁심나트륨	제일제당	2,635,904	2,970,955	12.7
26	세파클러	유한화학	0	2,995,136	-
27	세프라딘	영진약품	2,122,596	2,906,650	36.9
28	세포트라악손나트륨	제일제당	783,114	2,891,725	269.3
29	세파졸린나트륨	영진약품	2,887,850	2,817,920	▽2.4
30	메페남산	유한양행	3,102,300	2,788,761	▽10.1

당이 국내시장 한계를 타파하기 위해 인디아에 합작법인을 설립, 국내생산을 대폭 감소시켰기 때문이다.
94년에 가장 많이 생산된 원료의약품은 우평의 아목시실린으로 93년대비 101.5% 급신장했으며 다음이 한국오츠카의 실로스타졸, 삼천리제약의 지도부딘, 종근당의 염산 디메칠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, 경보화학의 세파클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.
한편, 원료의약품시장의 기업별 순위는 93년 5위기업인 우평이 284억4400만원으로 73.9%의 신장률을 보이며 1위기업으로 부상했으며, 250억3000만원어치를 생산한 영진약품이 그 뒤를 쫓고 있고 종근당이 194억7000만원으로 3위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.

<화학저널 1995/4/10>